

## 세계를 잇는 외교관 동문 한마당 외대를 빛내는 간담회 가져



▲세계에서 모인 외대인들이 동문 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기념하며 활짝 웃고 있다.

동문 공관장 및 외교부 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외대의 위상을 빛냈다. 지난 달 19일(일) 우리학교에서는 동문 공관장 및 외교통상부 공직자들을 초청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희 주포르투갈대사를 비롯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박철 총장의 10여명의 학교 측 인사가 함께 자리했다. 동문 대표로 유정희 주포르투갈대사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인

사했다. 또 “모교의 눈부신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후배들이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어 든든하다”며 “동문들도 열심히 일하고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며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박철 총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공관장 동문들이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재학생들이 외교부에 있는 훌륭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박철

총장은 그동안 학교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박 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연설 △송도컨퍼런스 신축 계획 △국립외교원 신설에 발맞춘 LD학부 신설 △QS세계대학평가 어문학분야 34위 진입 등을 언급해 앞으로 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권순환 총동문회장은 “외교부에 200명 이상이 외대출신이라는 사실에 외대 전성시대가 열릴 것 같아 기쁘고 더욱 애교심을 갖게 됐다”며

“선후배간 훈훈한 정을 나누고 서로 화합을 다지는 유쾌한 동문회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동연 동북아재단 사무총장(인도어 72), 유정희 주포르투갈대사(불어 73), 손성환 주스웨덴대사(불어 74), 조병립 주파나마대사(불어 74), 박용규 주뉴질랜드대사(영어 74), 박동원 주과라과이대사(영어 75), 강희운 주모잠비크대사(영어 75), 이기천 국립외교원 경력교수(영어 75), 권태면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영어 76), 박희권 주페루대사(서어 76), 최종현 의전장(영어 76), 최철규 주가봉대사(불어 76), 송용열 주이란대사(아랍어 77), 이태로 주몽골대사(영어 77), 정인근 주에콰도르대사(서어 78), 임근형 평가담당대사(영어 78),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영어 79), 문덕호 아프리카중동국장(불어 79), 김찬우 주케냐대사(영어 80), 전홍조 주코스타리카대사(영어 80), 서정인 남아시아태평양국장(독어 80), 우경하 청와대 의전비서관(영어 81), 박준용 동북아시아국장(영어 82), 강수경 채용평가팀 서기관(영어통번역 05) 등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처럼 많은 동문이 현직에서 활약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지난 달 제2회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된 윤덕민(정치외교학 79) 동문은 “외대만의 강점은 밖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내보다도 세계로 나가면 훨씬 많은 동문들이 활약하고 있어 자랑스럽고, 지금의 자리도 결국 외대였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 베트남 국립대학교 MOU 체결

우리대학이 미얀마 양곤대학에 이어 베트남 수도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하노이 국립대학교의 주요 대학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하노이 국립대학교는 호찌민 국립대학교와 함께 베트남의 명문대학으로 손꼽힌다.

박철 총장은 지난 달 13일(월) 하노이 국립대학교 소속 국립 인문사회과학대학을 방문해 응우옌 반카이 총장과 MOU를 체결했다. 또한 교수·학생 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등 학술연구 교류에 서로 힘쓰기로 합의했다. 이어 박 총장은 14일(화)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을 찾아 응우옌 란 트럼 부총장과 MOU를 체결했다. 오후에는 하노이 국립대학교의 풍 수

연 나 총장을 방문해 2시간여간 양교간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환담을 나눈 후 MOU체결을 결정했다. 특히 이 자리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하노이 국립대학교가 MOU 체결을 합의한 뒤 풍 추언 나 하노이 국립대학교 총장이 이번 해 9월 우리학교를 방문하기로 약속해 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MOU 체결 자리에는 △박철 총장과 함께 △장대업 국제교류처장 △박중찬 국제사회교육원장이 배석했다.

한편 박철 총장은 하노이에 도착한 지난 달 11일(토) 박달홍(불어교육 74 재) 하노이 우리학교 동문회장 및 동문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재 하노이 동문회는 학교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탁 약정했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 우리말 '바탕튼튼' 한교과

지난 달 15일(수)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한글문화연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말 받아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2000여명의 시민이 모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연을 벌였다. 여기에 우리학교 한국어교육과 재학생 10여명이 출전했다. 참가학생 중 4명이 50위권에 들었으며 1명이 10위권에 진출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김봉현(사범·한교 09) 한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은 “다른 팀은 평균적으로 2-30명, 많게는 60명까지 참가한 데 비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13명이 출전해 약 30%가 50위권에 올라가 단체 2위로 뽑혔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는 받아쓰기 형식의 1차전과 끝단벨 형

식의 2차전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학교 참가학생들 중 △김현지(사범·한교 13양) △이다은(사범·한교 13양) △윤효영(사범·한교 13군) △공두환(사범·한교 13군)이 50위권에 진입해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다. 이다은 양은 10위권까지 진출해 상금 10만원의 보람상을 수상했다. 이외 3명의 학생은 90점 이상의 참가자에게 주는 팜팡팡상과 80점대의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주는 바탕튼튼상을 받았다.

대회에 참가한 김현지 양은 “앞으로 한글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경순 한국어교육과 학과장은 “한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와 참으로 뿌듯하다” 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 지면안내

2 서울배움터 총회 또 무산

4 노천극장이여 안녕

7 우리학교 학생들의 역사 인식은?

8 대학가 술 문화 진단



12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말하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우정



빈 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 진단은 의사, 판단은 검찰, 확인은 기자?

▲지난 달 25일(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그 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중견기업 회장의 ‘사모님’인 윤 씨는 판사였던 자신의 사위와 여대생 하 양이 사귀는 것으로 의심 현지 경찰관을 포함, 십 여 명을 동원해 두 사람을 미행해왔다. 숨진 여대생과 사위 김 판사는 이종사촌 사이로 2년에 걸친 미행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윤 씨의 의심은 더 커져 결국 하 양을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2명이 검거됐다. 이에 대법원은 청부 살해에 가담한 3명의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윤 씨가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이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했으며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받은 의사의 진단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차례 형 집행 허가를 내준 검찰은 그동안 하 양 가족들의 확인과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곧 방송을 앞두고 집행정지를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했다.

▲앞서 언급된 사실 때문에, 방송이후 그녀가 자행한 범죄에 함께 가담한 이들에게 온 국민의 눈길을 향했다. 하 양 미행에 가담한 경찰,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눈 감고 귀 막고 판단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피해자 허 양의 가족들은 이들을 믿을 수 없다며 하루 100만원 이상 하는 병원 특실에서 죄 값을 치르지 않는 윤 씨를 보며 방송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년동안 하양을 미행한 경찰, 버젓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형 집행정지 허가를 내린 검찰 모두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 아픈 곳이 있

을 때 찾아가 치료받기에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의사, 그리고 법 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신뢰받는 존재였던 그들이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국민이 말하고 있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 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중인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이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이 생겨났다. 이런 형태로 믿을 수 없는 형 집행이 계속된다면 곧 ‘진단은 의사에게 판단은 검사에게 그러나 확인은 기자에게’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을까. 법에서도 의학에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을 대중이 공론화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니 말이다.

편집장



## 세계를 잇는 외교관 동문 한마당 외대를 빛내는 간담회 가져



▲세계에서 모인 외대인들이 동문 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기념하며 활짝 웃고 있다.

동문 공관장 및 외교부 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외대의 위상을 빛냈다. 지난 달 19일(일) 우리학교에서는 동문 공관장 및 외교통상부 공직자들을 초청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희 주포르투갈대사를 비롯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박철 총장의 10여명의 학교 측 인사가 함께 자리했다. 동문 대표로 유정희 주포르투갈대사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인

사했다. 또 “모교의 눈부신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후배들이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어 든든하다”며 “동문들도 열심히 일하고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며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박철 총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공관장 동문들이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재학생들이 외교부에 있는 훌륭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박철

총장은 그동안 학교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박 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연설 △송도컨퍼런스 신축 계획 △국립외교원 신설에 발맞춘 LD학부 신설 △QS세계대학평가 어문학분야 34위 진입 등을 언급해 앞으로 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권순환 총동문회장은 “외교부에 200명 이상이 외대출신이라는 사실에 외대 전성시대가 열릴 것 같아 기쁘고 더욱 애교심을 갖게 됐다”며

“선후배간 훈훈한 정을 나누고 서로 화합을 다지는 유쾌한 동문회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동연 동북아재단 사무총장(인도어 72), 유정희 주포르투갈대사(불어 73), 손성환 주스웨덴대사(불어 74), 조병립 주파나마대사(불어 74), 박용규 주뉴질랜드대사(영어 74), 박동원 주과라과이대사(영어 75), 강희윤 주모잠비크대사(영어 75), 이기천 국립외교원 경력교수(영어 75), 권태면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영어 76), 박희권 주페루대사(서어 76), 최종현 의전장(영어 76), 최철규 주가봉대사(불어 76), 송용열 주이란대사(아랍어 77), 이태로 주몽골대사(영어 77), 정인근 주에콰도르대사(서어 78), 임근형 평가담당대사(영어 78),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영어 79), 문덕호 아프리카중동국장(불어 79), 김찬우 주케냐대사(영어 80), 전홍조 주코스타리카대사(영어 80), 서정인 남아시아태평양국장(독어 80), 우경하 청와대 의전비서관(영어 81), 박준용 동북아시아국장(영어 82), 강수경 채용평가팀 서기관(영어통번역 05) 등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처럼 많은 동문이 현직에서 활약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지난 달 제2회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된 윤덕민(정치외교학 79) 동문은 “외대만의 강점은 밖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내보다도 세계로 나가면 훨씬 많은 동문들이 활약하고 있어 자랑스럽고, 지금의 자리도 결국 외대였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 베트남 국립대학교 MOU 체결

우리대학이 미얀마 양곤대학에 이어 베트남 수도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하노이 국립대학교의 주요 대학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하노이 국립대학교는 호찌민 국립대학교와 함께 베트남의 명문대학으로 손꼽힌다.

박철 총장은 지난 달 13일(월) 하노이 국립대학교 소속 국립 인문사회과학대학을 방문해 응우옌 반카이 총장과 MOU를 체결했다. 또한 교수·학생 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등 학술연구 교류에 서로 힘쓰기로 합의했다. 이어 박 총장은 14일(화)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을 찾아 응우옌 란 트럼 부총장과 MOU를 체결했다. 오후에는 하노이 국립대학교의 풍 수

연 나 총장을 방문해 2시간여간 양교간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환담을 나눈 후 MOU체결을 결정했다. 특히 이 자리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하노이 국립대학교가 MOU 체결을 합의한 뒤 풍 추언 나 하노이 국립대학교 총장이 이번 해 9월 우리학교를 방문하기로 약속해 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MOU 체결 자리에는 △박철 총장과 함께 △장대업 국제교류처장 △박중찬 국제사회교육원장이 배석했다.

한편 박철 총장은 하노이에 도착한 지난 달 11일(토) 박달홍(불어교육 74 재) 하노이 우리학교 동문회장 및 동문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재 하노이 동문회는 학교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탁 약정했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 우리말 '바탕튼튼' 한교과

지난 달 15일(수)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한글문화연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말 받아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2000여명의 시민이 모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연을 벌였다. 여기에 우리학교 한국어교육과 재학생 10여명이 출전했다. 참가학생 중 4명이 50위권에 들었으며 1명이 10위권에 진출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김봉현(사범·한교 09) 한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은 “다른 팀은 평균적으로 2-30명, 많게는 60명까지 참가한 데 비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13명이 출전해 약 30%가 50위권에 올라가 단체 2위로 뽑혔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는 받아쓰기 형식의 1차전과 끝단벨 형

식의 2차전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학교 참가학생들 중 △김현지(사범·한교 13양) △이다은(사범·한교 13양) △윤효영(사범·한교 13군) △공두환(사범·한교 13군)이 50위권에 진입해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다. 이다은 양은 10위권까지 진출해 상금 10만원의 보람상을 수상했다. 이외 3명의 학생은 90점 이상의 참가자에게 주는 팜팡팡상과 80점대의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주는 바탕튼튼상을 받았다.

대회에 참가한 김현지 양은 “앞으로 한글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경순 한국어교육과 학과장은 “한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와 참으로 뿌듯하다” 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 지면안내

2 서울배움터 총회 또 무산

4 노천극장이어 안녕

7 우리학교 학생들의 역사 인식은?

8 대학가 술 문화 진단



12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말하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우정



빈 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 진단은 의사, 판단은 검찰, 확인은 기자?

▲지난 달 25일(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그 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중견기업 회장의 ‘사모님’인 윤 씨는 판사였던 자신의 사위와 여대생 하 양이 사귀는 것으로 의심 현지 경찰관을 포함, 십 여 명을 동원해 두 사람을 미행해왔다. 숨진 여대생과 사위 김 판사는 이종사촌 사이로 2년에 걸친 미행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윤 씨의 의심은 더 커져 결국 하 양을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2명이 검거됐다. 이에 대법원은 청부 살해에 가담한 3명의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윤 씨가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이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했으며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받은 의사의 진단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차례 형 집행 허가를 내준 검찰은 그동안 하 양 가족들의 확인과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곧 방송을 앞두고 집행정지를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했다.

▲앞서 언급된 사실 때문에, 방송이후 그녀가 자행한 범죄에 함께 가담한 이들에게 온 국민의 눈길을 향했다. 하 양 미행에 가담한 경찰,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눈 감고 귀 막고 판단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피해자 허 양의 가족들은 이들을 믿을 수 없다며 하루 100만원 이상 하는 병원 특실에서 죄 값을 치르지 않는 윤 씨를 보며 방송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년동안 하양을 미행한 경찰, 버젓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형 집행정지 허가를 내린 검찰 모두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 아픈 곳이 있

을 때 찾아가 치료받기에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의사, 그리고 법 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신뢰받는 존재였던 그들이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국민이 말하고 있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 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중인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이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이 생겨났다. 이런 형태로 믿을 수 없는 형 집행이 계속된다면 곧 ‘진단은 의사에게 판단은 검사에게 그러나 확인은 기자에게’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을까. 법에서도 의학에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을 대중이 공론화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니 말이다.

편집장



학내 브리핑

우리학교 부종민군 검도 우승

지난 달 11일(토) 우리학교 부종민(법·법 06)이 제 41회 춘계 서울시 대학검도연맹전에서 남자부 개인전 진출자 83명 중 1등을 차지해 우승을 거뒀다. 이 대회는 서울시 대학검도연맹에서 주최했으며 서울시 대학검도연맹에 가맹된 30여개 대학이 경기에 참여했다.

우리학교 학생이 검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이에 부 군은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없어 오바마홀 입구 앞 통로에서 행사가 없을 때마다 틈틈이 운동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낸 승리라 더 값있다"고 전했다.

초여름 밤의 뜨거운 열기 '청량제'

지난 달 글로벌배움터에서는 14일(화)과 15일(수) 이틀에 걸쳐 기숙사축제인 '청량제'가 열렸다. 낮에는 △간식 부스 △악세사리 부스 △헤나를 그려주는 부스 △무료로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부스 등이 차려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저녁부터는 바(bar)를 운영해 수입맥주와 칵테일 등의 주류와 치킨, 소시지 등의 음식을 판매했으며 가요제 '홀스갯벨리트'와 클럽파티가 있었다. 이현기(통번역·독일어 07) 기숙사 총사장은 "사생활에서 밤에 학교 내 순찰을 돌며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했고, 학생들도 잘 따라줘서 축제가 안전하게 끝났다"고 전했다.

성공 창업을 위한 첫걸음

우리학교 연구산협력력단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실무 위주의 체계적 창업 강좌의 교육수강생을 이번 달 14일(금)까지 모집한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나이와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 후 창업강좌 수료에 따른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www.hufs.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사됐습니다”... 5분 뒤 사라진 200명

서울배움터 비상총회 무산



▲많은 학생이 빠져나가 텅 빈 비상총회의 모습

지난 달 22일(수)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비상총회가 결국 무산됐다. 이번 총회는 시작하기 전 877명의 학생이 참석해 정족수 869명을 넘겨 성사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학생 수 확인이 끝나자마자 많은 수의 학생이 퇴장해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 수를 재확인한 결과 610명이 참

석한 것으로 확인돼 총회가 무산됐다고 알려졌다. 학생 수를 재확인하자는 의견을 낸 조봉근(사회·정의 10)군은 "총회를 통해 총학생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결이 끝날 때까지 학생 수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 학생이 참여하지 않거나 도중에 퇴장한 이유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총학생회는 총회 홍보 문자를 수차례 보내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홍보했다. 그러나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하지 못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진 학생이 드물었다. 박찬해(동양어·베트남어 13)군은 "총회에 많은 학생이 참여했지만 무엇을 논의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많아 총학생회가 총회에 대한 홍보를 잘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도훈(서양어·독일어 13)군은 "사실 같은 학과 학생들이 오라고 해서 왔지만 정족수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봉근(사법·영교 09)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안건의 중요성을 더 알리지 못한 것이 이번 총회 무산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며 "다음 총회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안건을 공론화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무산된 총회에는 △도서관 시설정비 △학사정책예고제 △한국대학연합(한대연)재신임투표 △LD학부 관련안건이 상정됐다. 이중 학사정책예고제의 안건에는 학교가

이 제도를 시행할지에 대한 의문과 제도를 시행할 때 예고된 정책에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총학생회는 제기된 의문에 '정책예고제를 시발점으로 학교가의 사결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이에 더해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학생의 견수렴과정을 개편해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LD학부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국제학부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유전공학부 △영어통번역학과가 각 학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다른 학과의 교수가 LD학부로 배속돼 학습 환경의 측면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와 LD학부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대연재신임투표의 안건은 총회가 무산돼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이 안건은 무조건적으로 학생의 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세 안건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 뒤 학교와 협의할 예정이다.

양재성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우리학교 계절학기 수강료 책정 기준은

이번 해 계절학기 수강료가 1학점 당 7만 9천원으로 책정돼 지난 해 비해 5천원씩 인상됐다. 계절학기 수강료는 학교 측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3학점짜리 한 과목을 수강해도 최소 2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권정득 예산조정담장은 "계절학기 수강료는 정규학기 등록금에 비해 학점 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정규학기 34학점을 이수할 경우 1학점 당 20만원 정도이나 계절학기는 1학점 당 7만 4천원으로 낮으며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도 많이 올라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계절학기 수강료는 인근 사립대학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중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은 계절학기 수강료를 1학점 당 8만 9천원에서 11만원까지 책정했다. 학점과 관계없이 기본 수업료가 따로 붙거나 실습비 등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학도 있다. 하지만 엄은별(사법·독교 12) 양은 "우리학과는 다른 학과보다 비교적 이수학점이 많고 교직과목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듣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들어야 하는 수업이 많아진다"며 "다른 학교에 비해 계절학기 수강료가 낮더라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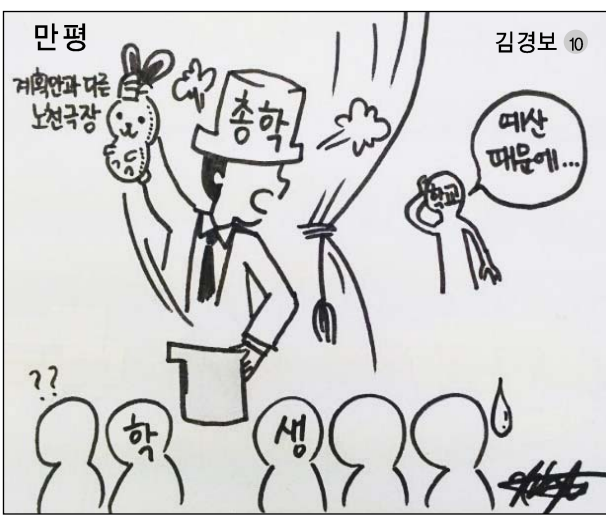
다. 이번 해 정규학기 등록금은 동결됐으나 계절학기 수강료와 같은 숨은 등록금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고등교육법에서는 정규학기 등록금 인상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을 규정하는 항목은 없어 이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지난 해 일부 국회의원은 계절학기 수강료에도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도 논의의 조짐을 보였다.

서울시내 4년제 사립대학	2012~2013 계절학기 수강료
연세대	11만원 (동결)
고려대	10만 9천원 → 10만 7천 9백원
이화여대	10만 1천 3백원 → 9만 7백원
경희대	8만 9천원 (동결)
우리학교	7만 4천원 → 7만 9천원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공관장 초청간담회  
참석 동문



박동원 주파라과대사서어 75



강희운 주모잠비크대사포어 75



이기천 국립외교원 경력교수(영어) 75



권태민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정치) 76



박희권 주페루대사서어 76



최중현 의전장(정치) 76



최철규 주기봉대사서어 76



송웅엽 주이탄대사서어 77



이태로 주몽골대사서어 77



정인균 주에티오피아대사서어 78



임근형 평양대사서어 78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정치) 79



문덕호 아프리카중동국장(불어) 79



김찬우 주캐나다대사서어 80



전홍조 주코스타리카대사서어 80



서정인 남아시아태평양국장(독어) 80



우경하 청와대 의전비서관(영어) 81



박준용 동북아시아국장(영어) 82

이날 간담회 행사에는 강수경 채용간담회(영어·영통 05) 동문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밖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 공관장에는 김종일 본부대사(불어 72), 정용철 본부대사(아랍어 72), 김광근 주세르비아대사(서어 73), 박원호 주수단대사(영어 73), 김병권 국제관계전문대사(무역 74), 김영소 주이집탄대사(서어 74), 김주택 주베네수엘라대사(서어 74), 김순태 주니카라과대사(포어 74), 김종우 주사우디대사(아랍어 75), 홍성화 주멕시코대사(서어 76), 서승열 주코스타리카대사(정치 76), 두정주 주파라과대사(서어 77), 차영철 본부대사(독어 78), 조준혁 주카메룬대사(불어 79), 장명수 중남미국장(서어 80), 김종근 주에티오피아대사(아랍어 80), 전영욱 주볼리비아대사(정치 80)가 있다.



## 적극적·직접적인 대화의 시작 글로벌배움터 박철 총장과의 대화

우리학교 박철 총장이 지난 달 15일(수) 글로벌배움터 공학관 207호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행사는 박 총장 특강과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스승의 날 진행된 박 총장과의 대화는 총학생회 학생들이 총장과 강기훈 행정지원처장, 이상열 학생복지처장 등 교수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 날 진행된 특강에서 박 총장은 △영어 공부 △우리학교만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부심 △우리학교 주요 3가지 교육정책 활용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학교의 브랜드는 “영어(외국어)를 잘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공계 학생이 전공과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다면 일거양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는 사립대학이지만 국내 제1의 외국어대학으로써 국립대학 못지 않게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강 후 박 총장과 학생은 질의시간을

가졌다. 이 순서에서는 글로벌배움터에 자유전공학부 대신 개설되는 한국학과에 관한 질문과 자연과학대학의 약학대학 건립 추진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손보미나(국제지역·아프리카 10) 글로벌배움터 국제지역대학 학생회장은 “지역학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국제지역대학이 현재 모호한 수업과정을 유지하고 있어 본래 취지에 맞는 발전이 가능할까 걱정된다”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은 “지역학 입문과 같은 보다 폭넓은 교육을 위해 글로벌배움터에서도 광역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과제도에서는 전공 언어에 대해서만 알고 △정치 △역사 △사회는 모르는 편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학부과정에서는 언어가 기본”이라며 “본격적인 지역학 공부는 대학원에 진학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형근(통번역·영어 08) 글로벌배움

터 총학생회장은 “글로벌배움터에서 신설하는 한국학과가 과연 LD학부만큼의 성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은 “한국학과와 국제금융학부를 글로벌배움터의 선도학과로 만들 계획”이라며 “한국학과 교수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첫 과정은 외국인 교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학과에 대한 간단히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학과는 글로벌배움터의 외국인 학생유치를 위한 창구 역할 또한 이행할 것”이라 답했다.

김동훈(국제지역·국스레 07) 국제스포츠레저학과국스레 학생회장은 “그 동안 여타 학과에 비해 높은 등록금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문의했으나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총장에게 직접 물으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추상적인 대답만 돌아와 아쉬웠다”고 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 박용규 대사, 후배들에게 외교관의 꿈 전파



사진 임재윤 기자

▲박용규 주뉴질랜드대사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외교관의 역할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수) 박용규(정치외교학 74) 주뉴질랜드 대사가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박용규 주뉴질랜드 대사는 △캐나다 △파키스탄 △제네바 △런던 등지에서 과건 근무하며 33년째 국가외교에 이바지하고 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박용규 동문은 “재학 중일 때의 흔적을 엿볼 수 없어 아쉽기도 하지만 학교가 엄청난 발전을 해 기쁘다”며 감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외대를 졸업한 것은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며 “외교업무 위해 가는 곳마다 선배들, 동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도움을 줘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날 특강에는 학생 50여명이 참석해 외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박용규 동문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외교관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현재 국제정세의 특징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등 폭넓은 외교현안에 대해 다뤘다. 최현광(사회·정외 10) 군은 “강연내용

이 수업과도 연관돼 우리나라와 동북아 정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지유란(중국·중국지역학 11) 양은 “평소 외교관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외교관 선배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없었다”며 “선배님의 강연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외무고시반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이상환 학생복지처장은 “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의 강의가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큰 과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치며 박용규 동문은 “우리학교의 교훈이 △진리 △평화 △창조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창조’가 부상하고 있고 세계평화를 위해 외교가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학교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적합하기에 각계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앞으로 우리 외대를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결 기자 86eg@hufs.ac.kr

## 이번 체전도 무사히



▲지난 달 16일(목)에 있었던 계주 단체전 모습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긴장감이 느껴진다

지난 달 16일(목)에 글로벌배움터의 체전인 'CHAEUMS LEAGUE'의 단체전이 오후 3시 반부터 있었다. 이번 단체전은 신본관 건설로 쓸 수 없는 대운동장 대신 외대사거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모현레스피아에서 열렸다. 학과 대항으로 치러진 종목별 경기인 △농구 △피구 △발야구는 교내에서 진행됐으며 △축구는 레스피아에서 치러졌다.

단체전 경기 종목으로는 △계주 △협동제기차기 △농구 △피구 △발야구가 있었다. 단

체전은 단과대학(단대) 대항전으로 계주 예선, 협동제기차기, 계주 본선, 농구, 발야구, 계주 결승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동제기차기는 남자 5명과 여자 3명이 한 팀을 이뤄 단대별 3팀으로 구성해 경기했고, 농구, 발야구는 △다리역할 30명 △주자 1명 △도움 2명으로 단대별 총 33명이 출전했다.

이번 체전에서 △국제스포츠레저학과가 1등으로 종합우승해 트로피와 상금 50만원을 △수학과가 2등 종합준우승으

로 트로피와 30만원의 상금을 △화학학과가 3등을 차지해 상금 20만원을 수상했다. 이외 산업경영공학과가 페어플레이상을 받아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종합우승한 김동훈(국제지역·국스레 07) 국제스포츠레저학과회장은 “지난해는 성적이 좋지 않아 학과 구성원들이 이번 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자 다짐했었다”며 “선후배가 한마음으로 경기에 열심히 임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석유 한 방울이 삼성토탈과 만나면...

석유 한 방울 [O]에 담긴  
무한대 [∞]의 가능성,  
**삼성토탈이 실현합니다**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최첨단 신소재까지!

오늘 당신은 삼성토탈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이른 아침 조깅코스에서 타고갈 자동차 안까지..  
당신의 생활 모든 곳에 삼성토탈이 늘 함께 있습니다

[www.samsungtotal.com](http://www.samsungtotal.com)



# 건강한 생활습관은 내 몸을 위한 투자

지난 달 21일(화) '건강도 스펀지다 2' 행사에 글로벌배움터 본관 로비에서 있었다. 이 행사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학교 보건소와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의 협조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초검진코너 △다이어트 코너 △금연코너 △절주코너가 준비됐다. 특히 여학생의 관심이 집중된 다이어트 코너에서는 인바디(irbody)검사를 통해 근육량과 체지방량 등을 측정 후 운동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이어트 코너의 상담을 맡은 김성기 처인구 보건소 운동처방사는 "검사를 받은 여학생 중 대부분이 근육량은 적은 반면 체지방량은 많은 편이 많았다"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운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코너에서는 일산화탄소(CO) 측정기를 이용해 일산화탄소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이 진행됐다. 또 금연을 응원하기 위해 △칫솔세트 △박하사탕 △니코틴 패치 등을 나눠줬다. 김진경 처인구 보건소 금연상담사는 "하루에 담배를 한두갑 피우는 사람은 일산화탄소량이 30~40정도 나오며 이는 보통사람이 어지럽고 쓰러질 정도의 양이다"라고 설명하며 "실제 흡연자의 경우 만성저산소증에 빠져서 보통사람들처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창석(공과·산환경영 13군)은 "평소에 하루 다섯 개피를 피우는데 일산화탄소량이 8이 나왔다"며 "앞으로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충고해 준대로 양치질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마"서야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과음을 했을 때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하는 절주코너도 마련됐다. 절주코너검진에 참가한 장승호(인문·사학 13군)은 "검사방법이 간단해서 똑바로 잘 걷고 공도 잘 맞힐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비틀거리며 걸었고 공도 빛나서 당황스럽다"고 했다. 행사를 마치고 유은경 처인구보건소 보건소장은 "△과음 △흡연으로 인한 폐해 △고혈압을 미리 방지해 전국민의 건강이 향상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또한 "일주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처인구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엑스레이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86ccosmos@hufs.ac.kr



▲이 날 음주가상체험에는 가상음주안경을 쓰고 일자로 걷기와 과녁맞히기가 있었다. 위 사진에는 한 남학생이 가상음주안경을 쓰고 과녁 맞힐 준비를 하고 있다.

## 학생의 의견은 어디에 노천극장 리모델링 공사 중단

서울배움터 노천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잠정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세워지기 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학교는 노천극장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해 2월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비대위와 학교는 노천극장을 철거하고 잔디광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노천극장 리모델링 협의에 관한 내용 확인서'를 만들어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내용 확인서에는 △현재 노천극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 학생 1000명의 규모 유지 △학생이 결집해 행사를 진행하는 가능 유지 △학생이 잔디광장에 착석할 수 있도록 계단과 같은 구조물 설치 △잔디광장으로 대체한 뒤 학생회가 필요로 할 경우 오바마홀을 무료대여 허용 등의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공사장 구조물을 철거한 뒤 학생에게 공개된 잔디광장은 학생과 학교 사이의 협의안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계단과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데다가 학생이 결집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는 지난 달 24일(금)과 27일(월)에 걸쳐 학교에 항의했다. 그리고 지난 달 28일(화) 건설기획팀에 학생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조봉현(사범·영교 09) 총학생회장은 "우리는 공사가 진행된 방향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난 비대위와 합의한 사항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항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명수 서울배움터 행정지원처장은 총학생회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이후 공사를 진행할 때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김재준 건설기획팀 팀장은 이에 대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공사의 진행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차단막을 걷은 노천극장 공사장의 모습

학생은 현재 공개된 잔디광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광장으로 변해 탁 트인 느낌이 들어 좋다'는 의견과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 공간이 별 이용 가치 없는 통행로처럼 변화해 아쉽다'는 대조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가 합의안과 다른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선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다. 배미림(영어·영문 12양)은 "합당한 이유와 해명 없이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점에 실망이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경은(서양어·독일어 13양)은 "노천극장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동아리가 어디서 소공연을 진행할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재성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 글로벌배움터 구 기숙사 새단장 확정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에서 지난 2011년 신(新) 기숙사(HUFS Dom)가 개설된 후 사용하지 않던 구(舊) 기숙사를 리모델링하게 됐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되는 기숙사는 신 기숙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빠른 다음 학기 중으로 완공돼 학생에게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구 기숙사 리모델링은 지난 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현재 △설계 △입찰공고 △현장 설명회 등의 시작 초반 준비단계에 있다. 이번 공사방식은 지난 신 기숙사와 같은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가 아닌 학교예산을 사용한다.

이번 구 기숙사 리모델링의 이유는 특별히 여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기훈 글로벌배움터 행정지원처장은 "1,73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신 기숙사임에도 입사 지원에 탈락하는 여학생이 많다"며 "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의 안전과 치안 문제, 먼 거리 통학의 어려움 등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처장은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한 데 모여 이번 구 기숙사 리모델링은 예상보다 빠르고

추진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리모델링 되는 구 기숙사는 2인실과 4인실로 구성이 될 예정이다. 2인실과 4인실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미정이나 약 2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는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기초 뼈대는 그대로 두고 일부의 관 정비와 내부 수리이다. 따라서 호실 별 개별화장실은 불가해 기존 공동화장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게 된다. 내부 공사는 △창호 △가구교체 △난방 시설 등이 있다.

이전 구 기숙사 건물내 부대시설에 관한 공사는 현재 예정돼 있지 않으며 입사생의 이용에 있어서도 확정된 바 없다. 하지만 송주환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장은 "구 기숙사 입사생이 기존 신 기숙사의 부대시설인 △식당 △PC실 △휘트니스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효은(통번역·태국어 11)양은 "신 기숙사 입사비용은 부담이 많이 됐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이 나온다는 소식에 반갑다"며 "개방 후 시설을 살펴보고 입사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 한국외대 평생교육원

교육생 모집

외대를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모집과정		
계열	과목명	시간표
실무능력 Up-skill 과정	비즈니스 성공 리더십, 마케팅 매니저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증권시장의 이해, e-비즈니스, 무역 비즈니스	홈페이지 참조
전문과 과정	독서논술지도사과정, 통합논술지도사과정, 입학사정관전형 컨설팅전문가과정, 귀농과 농업경영 전문과과정	
웰빙/힐링 과정	인문학 판타지(술, 음악, 손저병법), 대인 관계의 심리학, 운명학과 건강, Abundant Life(성경영어), 웰빙 운동과 건강(이론 및 실습) 레크리에이션, 정신건강과 명상치유	
글로벌 문화 과정	중동 및 이슬람 문화의 이해,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유럽 문화의 이해	
교양/취미 과정	수상스키, 캠핑과 야영, 사물놀이, 맨스스포츠, 필라테스, 한국무용(태평무), 라인댄스	
외국어 과정	본교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45개 외국어 과정 개설 중	

지원 접수

원서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에 의한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접수기간: 2013.2.4(월)~2.22(금) ▶접교육기간: 2013.3.1(월)~6.21(금)  
▶접수처: 2013.2.4(월)~2.22(금) ▶문의: 02-2173-2515/2498  
▶교육시간: 주당 3시간, 총 45시간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30-79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 외국어연수평가원 2학기 교육 안내

20주 주·야간과정 / 10주 야간 회화과정

외대 학부생 과정 수료 시, 학점인정(실용외국어-필수)/외국어인증(2007학번부터)/영어졸업인증(2006학번까지)

1. 모집언어

언어	단계	편성
영어	1~5단계	단계별 2~3개반
중국어	기초	※ 인터뷰 실시 후 결정
일본어	초급	
독일어	중급	
스페인어	고급	
프랑스어	※ 학습단계 참고	
러시아어	기초: 문자 학습	
베트남어	초급: 3개월 이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급: 6개월~1년 이내 고급: 1년 이상 학습자	
아랍어		
터키어		

2. 교육기간 및 시간

과정	기간	수업일	수업시간
20주(주간)	8. 5(월)~12. 20(금)	월~금	09:30~16:20
20주(야간)			18:30~21:20
10주(야간)	8. 5(월)~10. 18(금)	월, 화, 목, 금	19:40~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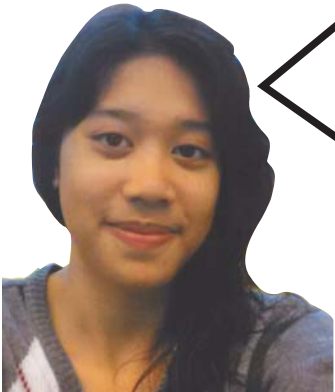
모집기간: 2013. 6. 3(월)부터 선착순  
접수방법: 외국어연수평가원 홈페이지 http://lftc.hufs.ac.kr/  
문의사항: 외국어연수평가원 운영팀(02-2173-2523~2524)



# earTHeMe

## 다른 나라 성년의 날은 어떨까

지난 달 20일(월)은 성년의 날이었다. 이번 해로 만 19세가 되는 1993년생들이 그 주인공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아 주인공에게 장미나 향수 등을 선물하며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성군관에서 전통격식으로 성년례가 행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년의 날이 지정돼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성년이 된 것을 어떻게 기념할까.



▲스타리아 안자니(Gerra Anjani), 인도네시아, 행정학과 교환학생

### 인도네시아에도 성년의 날이 있나요?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처럼 따로 성년의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17살 생일을 한국의 성년의 날처럼 여깁니다. 17살이 되면 신분증이 생기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17살 생일에 무엇을 하나요?

인도네시아는 음주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해주거나 좋은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는 정도입니다. 술이 없는 건전한 모임을 통해 축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17살 생일을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폴란드에도 성년의 날이 있나요?

네, 폴란드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사실 그 날을 챙기기 보다는 20살이 된 해를 더 중요시하며 축하합니다. 그날이 되면 가족보다 친구들과가 모여 생일을 축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 그렇다면 20살 생일날 무엇을 하나요?

친구들끼리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한 잔 하기도 합니다. 사실 폴란드에서 술은 성인이 되는 20살 이전이라도 18살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요. 그래도 20살이 된 해 특별히 클럽이나 바에 놀러가 다른 20살이 된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고는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그날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도 다 같이 만나 논다는 것이죠.



▲마리올라 스테니오(Mariola Sanio), 폴란드, 정치외교학과 교환학생

### 스웨덴에도 성년의 날이 있나요?

아니요, 스웨덴에서는 한국처럼 특별히 성년의 날을 지정해 놓고 기념행사를 벌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성년의 날처럼 보내는데 그 방식도 한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의미에서 성년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성년이 된 해에 어떤 행사들을 하나요?

기존에 하지 못한 독특한 일을 합니다.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트럭 위에 올라가 함성을 지르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녀요. 광란의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또 스웨덴에서는 15살을 넘기면 클럽 출입이 가능하고 18살 이상부터는 바 출입이 가능하며 운전할 수 있게 되요. 이때부터는 이렇게 자유가 부여되는 동시에 책임이 커집니다. 범죄를 저지를 시 더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아담 헤셀봄(Adam Hesselbom), 스웨덴, 정치외교학과 교환학생

김가림 · 서보윤 · 이영호 수습기자 87leeyh@hufs.ac.kr

## 세계 브리핑

### 프랑스, 최초 동성결혼커플 탄생



▲프랑스에서 첫 동성결혼을 올리는 동성커플인 뱅상 오탱(Vincent Autin)과 브뤼노 부알로(Bruno Boleau). 식을 진행하는 동안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지난 달 18일(토)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29일(수) 한 쌍의 남성커플이 첫 동성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해 프랑스가 동성결혼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총 14개국에 됐다. 프랑스 정부는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도 허용했다. 이 커플은 "동성커플의 자녀가 여느 가정의 아이들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회 장벽을 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결혼식을 지켜보던 관광객들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성결혼 합법화 및 자녀 입양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지난 달 26일(일)에는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 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의 인파가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독일, 유대인에게 1조원 추가 지급

독일 정부가 다음 해부터 2017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 피해자에게 배상금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000억 원)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46개국에 흩어져 있는 나치 피해자 5만 60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독일은 1952년 나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담은 '룩셈부르크 협약'에 서명한 후 지난 60년 동안 주기적으로 배상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피해 단체와 협의하며 약 80조원을 배상해왔다. 추가로 확인되는 나치 범죄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배상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독일의 지속적인 배상은 최근 과거사와 관련해 망언을 늘어놓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와 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 새로운 바이러스 '전 세계를 위협'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SARS)과 같은 신종 바이러스인 중증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가 사람들 사이에 확산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현재까지 49명의 사람들이 감염됐다고 알렸으며, 감염자 중 27명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감염자는 대부분 중동에 있지만 최근 프랑스를 포함해 영국·독일 등 유럽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감기 바이러스처럼 작동하는 MERS-CoV는 호흡기관을 공격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폐렴과 신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 당국은 아직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알아내지 못해 감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WHO는 바이러스 해결을 위해 각국의 연구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지 · 최소영 수습기자 87artist@hufs.ac.kr



2014년 2월

Wall Street에서 만납시다!

## 제 4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2013 DONGBU Financial Essay Competition

- 참가대상** 1)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2013년 가을학기 기준)  
※ 2013년 8월 졸업자 제외, 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까지 참가 가능  
2) 단체(3인 이하) 응모 가능
- 공모주제** 1) 금융 및 관련 분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방안으로  
① 은행·보험 분야    ② 증권·자산·기타 분야 중 선택  
※ 세부 주제는 응모자 자율 선정
- 일정** 1) 신청서 접수: 2013. 6. 1~6. 30    4) 1차 심사 발표: 2013. 10월 초  
2) 응모작 접수: 2013. 8. 1~8. 31    5) 팀 프레젠테이션 대회 및 시상식 개최: 2013. 10월 중순  
3) 응모작 심사: 2013. 9. 1~9. 30    6) 글로벌 금융 탐방: 2014. 2월 초
- | 시상내역 | 구분 | 은행·보험 | 증권·자산·기타 | 시상금     | 비고                    |
|------|----|-------|----------|---------|-----------------------|
| 최우수상 |    | 1팀    |          | 500만원   | 평가 기준에 미달 시 일부 미선발 가능 |
| 우수상  |    | 1팀    | 1팀       | 각 300만원 |                       |
| 장려상  |    | 2~3팀  | 2~3팀     | 각 300만원 |                       |
- 시상특전** 1) 글로벌금융탐방: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및 장려상 중 1팀(팀당 최대 2명)  
2) 입상자 전원에게 동부그룹 입사·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





# 축제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 양 배움터 축제를 조명하다

### 락, 힙합, 일렉트로닉... 그리고 글로벌배움터

이번 글로벌배움터 대동제는 지난 달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3일간 진행됐다. 대동제를 주최한 제34대 총학생회 채움의 날짜별 주요 행사는 △첫째 날인 21일(화)에 왕산밸리 록 페스티벌 △22일(수)에 HUFS F1 GRAND PRIX △마지막 23일(목)에 ULTRA HUFS GLOBAL CAMPUS가 있었다. 오전과 낮 동안에는 중앙도모에서 각 학과들의 천막행사가 진행됐고, 오후시간에는 학생회관 앞 주차장에서 주점행사가 치러졌다. 함께 진행된 부대행사로 22일(수) 글로벌배움터 교육방송국 FBS 가요제, 축제 기간 3일 내내 함께 열린 풋살 대회 등이 있었다.

#### 첫날부터 대박

축제 첫날, 학생회관에서 명수당까지 이어진 중앙도모의 양 가장자리에는 여러 학과들의 행사로 꾸며진 천막들이 들어서 북적거렸다. 아랍 전통의 상을 입고 손님몰이에 나선 김설민(통번역·아랍어 13)은 “우리학교 축제는 외국어대학답게 여러 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 다른 대학 축제와는 색다른 매력이다”며 처음 맞는 축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인도학과 천막에서는 빗장뼈 부분에 헤너를 받고 있던 방은미(국제지역·인도 09) 양을 만났다. “지금 우리 과에서 헤너를 가장 잘 하는 후배에게 받고 있다”며 “4학년이라 축제를 맡길 줄 아는 없지만 고생하는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첫 날의 테마는 ‘지산 락 페스티벌의 우리학교화(化)’이다. 이에 오후 6시부터 노천극장에서는 한바탕 공연이 시작됐고 초대 가수로 △10CM △어반자카파 △애쉬그레이 등이 찾아왔다. 이 날 무대 앞 공간뿐 아니라 노천극장의 자리까지 공연을 즐기는 학생들로 가득 차 첫 날의 축제는 성공적으로 막을 열었다.



▲아랍 전통의상을 입고 손님몰이에 나선 새내기 김설민.

#### 다양한 부대행사로 다채로운 모습 보여

이번 축제 3일 동안 학생회관 현관에 차려진 총학생회 부스에는 생소한 기계 하나가 설치됐다. 그 기계는 바로 실제 단좌식 경주용 자동차 경주인 포뮬러 1(F1) 선수가 연습용으로 이용하는 알크래프트(R-Craft)라는 장비이다. 이는 수동 기어변속이 가능할 뿐 아니라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의 페달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해 실제 운전 느낌을 준다. 이 알크래프트는 축제 기간 동안 3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체험이 상시 가능했다.

22일(수) 오후 8시부터 노천극장에서는 이 알크래프트를 이용한 ‘2013 HUFS F1 GRAND PRIX’ 대회가 열렸다. 대회 참가비는 대회 전날인 21일(화)까지 사전 접수를 한 경우 1만원, 당일 현장접수의 경우 1만 5천원이었다. 참가비의 일부는 기계 대여비로, 나머지는 상금으로 사용됐다. 대회에 참가했던 이상호(국제지역·인도 10) 글로벌배움터 부총학생회장은 “운전면허가 없어 차를 운전해본

경험없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옆에서 알프레트 엔지니어가 도움을 줘 크게 어렵지 않았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사이 숙련도가 쌓여 점점 몰입하게 됐다”며 “실제 운전하는 느낌이 온몸으로 실감나게 느껴졌다”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노천극장에서는 학생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FBS 가요제가, 저녁 학생회관 앞에서는 중앙동아리 슬랩업의 힙합 공연이 진행돼 전날의 공연 열기를 이었다.



▲학생회관 앞에 마련된 알크래프트에서 한 학생이 체험하고 있다. 그는 과연 몇 분 안에 완주할 수 있을까

#### 여년과 달라진 모습

지난 학기 ‘교내 음주문화 개선 선언문’으로 인해 이번 대동제의 주점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주점 설치 공간이 오로지 학생회관 앞 주차장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또한 자리를 깔고 술자리를 벌이는 학생들에 대한 총학생회의 제재도 있었다.

또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전형근(통번역·영어 08) 총학생회장은 “저녁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노천극장과 학과 천막들이 있던 중앙도모를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청소했고, 주점이 있었던 장소는 해당 과회장이나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맡아 뒷정리했다”며 “축제 기간이면 배로 고생하는 환경미화생님을 위해 아침에 청소를 돕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학교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허순자(67) 직원 선생님은 “외대에서 삼십년 동안 근무했지만 이번 축제는 특별히 청소하기 쉬웠다”며 “학생들이 머물렀던 자리의 쓰레기를 스스로 정리했고, 주점 공간이 축소돼 청소할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축제에서는 술로 인한 싸움이나 주폭 등이 없는 개선된 음주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축제 마지막날인 23일 목 가수 DOK2와 빈지노의 무대가 있었던 저녁 공연. 이 날도 학생들은 노천극장을 가득 메웠다

글: 사진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 힐링이 필요해, 서울배움터

하늘에는 음표가, 땅에는 풍선이 생겨났다. 미니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이 늘 보던 학교를 새삼스레 구경하고, 어린이들이나 탈것 같은 작은 바이킹을 타고 웃을 짓는다. 2013 서울배움터 봄 대동제가 시작된 것이다.

#### 성소수자 홍석천과 공사판 꽃으로 힐링을

이번 축제의 테마는 ‘힐링’이었다. 축제의 총 기획을 맡은 김가람(상경·국통 10) 대동제 중앙주점 행사1팀장은 “요새 몇몇 학내 문제들로 괴로웠을 학생들에게 힐링을 해주고 싶었다”며 테마의 취지를 밝혔다.

이 테마에 맞춰 기획된 것이 배우 홍석천과 가수 어반자카파를 초대한 강연콘서트 ‘소란’이다. “홍석천씨는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잘 이겨내고 당당한 생활을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았다”는 것이 기획자 김양의 설명이다. 홍석천은 강연에서 “커밍아웃 이후 갑자기 모든 일감이 끊겼다”며 자신의 침체를 담담히 고백했다. 또한 극복과정을 말하며 올바른 성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솔직하고 대담하게 이끌어 나갔다. 그의 과감한 강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임윤이(사회·행정 13) 양은 “성소수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지금은 이해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노천극장 공사외벽에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꽃을 그리는 행사가 있어 힐링의 의미를 더했다. 교정을 다소 황량하게 만드는 공사판에 각자의 사연이 담긴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난 것. 이 행사는 소음을 내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황혜련(동양어·터키어 12) 양은 “공사 외벽이 보기 좋았는데 정말 예쁘게 변했다”며 웃었다.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제 삶에는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하는 홍석천

#### 넌시랭 섭외 반발에 저녁만 되면 텅 빈 풍선광장

사실 축제가 내내 매끄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축제 시작 전 강연콘서트의 강연자로 넌시랭이 예정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흡스라이프에서는 넌시랭 초대에 반대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Freedom-Call이라는 닉네임의 학생은 “지금 넌시랭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축제 기획단에서는 “축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학생

들이 싫어하니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넌시랭에서 홍석천으로 게스트 변경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학관 앞 잔디에 조성된 풍선 광장이 축제 기간 내내 저녁만 되면 텅 비어버리는 일도 발생했다. 기획자 김양은 “지난 해에도 그 자리에 커다란 풍선들을 설치했는데, 이번 해에는 조금 더 다채롭게 꾸미기 위해 작은 풍선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 들고 다니기 쉬워 사람들이 전부 뽑아가 저녁만 되면 잔디 위가 텅 비어버린 것이다. 축제 관계자는 풍선을 이문동 주민들과 우리학교 학생들이 뽑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김재우(동양어·몽골어 09) 군은 “풍선은 가져가라고 설치한 게 아니라 축제를 꾸미기 위해 설치한 것일 텐데”라며 “우리가 주인이 되는 축제에서 주인으로서 교양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총학생회에서는 결국 ‘자포자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축제 마지막 날에 “풍선, 이제 뽑지 말고 받아주세요”라며 풍선을 나눠준 것이다. 기획자 김양은 “밤새 땅바닥에 풍선을 박았지만 저녁만 되면 다 사라져버려 씁쓸했다”며 심정을 말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수 노천극장 공사 외벽을 장식하고 있다

#### 술판은 없지만 술은 있는 축제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축제 기획단에서는 주점 금지 대책의 일환으로 은하수 다방을 열었다. 또한 축제 기간에 맞춰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연계해 착한 음주 캠페인을 열고 공연 때에는 프로모션한 무알콜 맥주를 나눠줬다.

특히 은하수 다방은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주점 대신 마련한 교류의 장이었다. △총학생회에서 조명과 돛자리를 제공하고 △사범대학에서 어쿠스틱 공연을 준비하고 △우리학교 창업동아리 허브가 운영하는 허브카페에서 커피와 세계음료를 공급했다.

하지만 제 4대 총학생회 흡스캔들에서는 “비상총회 때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은하수 다방이 주점을 대체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하수 다방이 열린 미네르바동산에서는 돛자리 위에 앉아 삼삼오오 모여 교외에서 시온 술을 마시는 학생들을 찾을 수 있었다. 주점을 대체하려 한 은하수 다방이 오히려 임시 주점의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월드빌리지에서도 예년과 같이 동서양의 술을 팔았고 중국어대에서는 맥주 팔리기 마시기 행사까지 열었다.

축제 총 기획자 김가람 양은 “주점이 없어서 흡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말하며 “축제가 ‘같이 모인다’는 의미의 대동제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글 임재운 기자 86healing@hufs.ac.kr  
사진 이은결 기자 86eg@hufs.ac.kr



# 역사(歷史), 얼마나 알고 있니?

외대학보에서는 지난 달 27일(월)과 28일(화) 이틀에 걸쳐 우리학교 양 배움터 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시험에서 발췌한 문제로 구성된 역사 수준을 진단했다.

문제지는 외대학보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며 △기초상식문제 6문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편 △고1,2전 국모의고사에서 4문항을 뽑아 총 10문항으로 구성했다.

## ◆우리학교 학생들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설문에 참여한 우리학교 327명 학생의 역사수준을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14점이며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의 점수를 맞은 학생들도 표본의 31.9%를 차지했다. 배움터별 평균은 서울배움터는 6.27점, 글로벌배움터는 5.98점이다. 또 조사 결과 국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지 않은 공대, 자연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이 5.12점으로 문과학생들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문항별로 분석을 하면 현종일의 날짜를 묻는 1번문제와 서대문형무소에 관한 4번 문제의 정답률은 90%를 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었다. 문항 3번은 대한민국의 보물 1호를 묻는 질문이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국보 1호 승려문을 택해 정답률은 28%에 그쳤다. 세계최초 금속활자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을 묻는 문제도 전체 표본의 41%가 정답을 선택하지 못했다.

정답률 53%로 결과가 나온 8번 문제는 개화기 조선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제였다. 그러나 정답 (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선지가 모두 (다) 척화비 건립의 배경임을 알았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4.19 혁명에 대한 물음이었던 10번은 34%가 오답을 택했다. 그 중 8%가 5.16군사정변을 답으로 택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역사인지 및 역사인식수준이 우려할만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이시형(공과·산업경영 12군)은 “내가 풀었던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역사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라니 부끄럽다”며 “대학생으로서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유진(서양어·프랑스어 13양) 또한 “고교시절 수없이 풀었던 근현대사 문제였는데 몇 개월 만에 잊어버리니 안타깝다”며 “너무 시험에 맞춰 공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은

먼저 외대학보사에서 출제한 문항에 대해 우리학교 사학과 이영학교수는 “단순 암기나 단편적 사건만을 묻는 문항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낮은 사항을 묻지는 않는다”고 총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 교수는 “학생들의 오답유형을 보니 대체로 근현대사에 약하다”며 “특히 10번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사 문제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요즘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70, 80년대에 대학생들이 역사나 사회에 비교적 관심이 많았던 것에 비해 오늘 날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이 교수는 “역사와 일상생활이 관련 없어 보이지만 현대사는 삶의 방향을 결정 도우미 되기에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젊은이들이 5.18이나 ‘민중화’ 같은 역사개념을 모르는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

1. 현종일은 언제입니까?  
① 8월 15일    ② 5월 3일    ③ 7월 17일    ④ 10월 3일    ⑤ 6월 6일

2. 주리문을 펴며 도산서원을 통해 조선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후에 동방의 주자'로 불린 인물이 모달인 화백은 무엇입니까?  
① 100원    ② 1000원    ③ 5000원    ④ 10,000원    ⑤ 50,000원

3. 대한민국 보물 제 1호는 무엇입니까?  
① 불국사 다보탑    ② 승려문    ③ 훈민정음    ④ 흥인지문    ⑤ 종묘

4. 서대문 형무소가 주로 쓰인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조선개화기    ② 일제강점기    ③ 전두환정권    ④ 625전쟁    ⑤ 박정희정권

5. 현존하는 세계최초 금속활자인쇄본이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② 팔만대장경    ③ 직지심체요절    ④ 천상열차분야지도    ⑤ 조선왕조실록

6. 도산안창호 선생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발제 수정)  
① 이토히로부미 사살    ② 독립군정설    ③ 원산학사 설립    ④ 김오개역 주도    ⑤ 신민회 조직

7. 다음사실들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13.3고2전국학력평가문제 발제, 수정)

대조영을 중심으로한 건국과정 -정해공주요의 모험인 천장 구조 -일본에 보낸 국서에 사용된 왕의 호칭

① 가야의 건국과 국제교류    ②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    ③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④ 신라의 설립과 문화특징    ⑤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

8.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마지막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발제 수정)

(가)신미양요 (나)병인양요 (다)척화비 건립 (라)제너럴 셔먼호 사건 (마)에르트도급사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9. 상하이에서 백범 김구에 의해 건립됐으며 도쿄에서 일왕을 공격시도한 이봉창과 홍커우 공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던 윤봉길에 관한 독립운동단체는 무엇입니까?(11고1전국모의 발제)

① 신간회    ② 의열단    ③ 한국광복군    ④ 한인애국단    ⑤ 대한광복단

10. 1960년 이승만정권의 개표조작등의 부정선거를 거부한 학생중심 운동은 무엇입니까?  
① 4.19혁명    ② 5.18민주화운동    ③ 6월민주항쟁    ④ 3.1운동    ⑤ 5.16사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	1%	1%	13%	2%	11%	21%	2%	11%	3%	66%
2	2%	61%	54%	91%	29%	13%	3%	11%	25%	10%
3	2%	36%	2%	4%	59%	30%	86%	53%	10%	15%
4	1%	2%	28%	0%	0%	7%	3%	6%	49%	0%
5	94%	1%	3%	3%	1%	29%	5%	16%	13%	8%

▲ (위) 역사지단에 사용된 문제 (아래) 결과를 분석한 표  
대상 : 양 배움터 327명, 기간 : 5월 27일(월)~5월 28일(화)

##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어 인식이 부족해져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부족한 역사상식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초중고 시절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는 전근대사 위주기에 교과서에 부족처럼 들어있는 근현대사는 깊이 있게 배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근현대사를 당연히 알아야 할만큼 중요함에도 깊이 공부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한 대학교에 입학해도 사학과 학생이 아닌 경우, 역사관련 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많지 않을뿐더러 수강하는 학생의 수요도 많지 않다. ‘역사과목을 수강하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현우(경영·경영 12군)은 “고등학교 때 역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아 굳이 대학에서 역사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4일(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학수업에서 역사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경우 참여의향이 있나’하는 물음에 응답자의 30%가 ‘받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 ◆역사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

이렇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자발적으로 우리학교에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다. 5.18 역사 기행 단체와 역사동아리 흙스тори(HUFStory)가 그들이다.

지난달 17일(금)과 18일(토) 5.18광주역사기행에 참가한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을 만났다. 이번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글로벌배움터 △경상대 △동유럽대 △하이스 △열린마음이 기획해 약 25명 정도의 학생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5.18을 맞아 국립5.18묘지와 광주자유공원 등에 다녀왔다. 정종해(경상·경영정보 07) 5.18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두면 곧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며 “5.18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역사적 사실을 책에서만 배운 학생들은 행사에 참여한 이후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책에서 벗어나 현장을 보며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정 군은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 학생들이 국사에 관심이 없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답사를 가는 것은 책에 없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국사를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의 자유는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역사공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배움터 역사동아리 흙스토리(HUFStory) 회장 이수진(서양어·스페인어 09)도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흙스토리는 역사를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풍처럼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며 배우는 것을 추구하는 동아리다. 때문에 동아리회원들과 서대문형무소를 탐방했다는 이 양은 “서대문형무소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글로만 봤을 때는 단순히 안타깝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직접 건물을 보니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라고 말했다. 또 이 양은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역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체험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배들과 함께 사전조사를 해가면 재미는 배가 된다”며 역사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는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역사교육을 강조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졌음에도 정작 역사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우리들의 책임은 아닐까.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역사는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인간 정신의 최초의 산물이다.’라고 말했다. 기초학문으로써, 한국인의 상식으로써, 역사는 중요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김재훈 수습기자 87chaehoon@hufs.ac.kr

## 외대학보 제2회 학술대전

- ▶ **응모 자격** : 우리학교 학부생 누구나(휴학생 포함)
- ▶ **공모 기간** : 9월 1일(일)부터 ~9월 30일(월)까지
- ▶ **주제** : 자유 (모집 분야에서 택1)
- ▶ **모집 분야**
  - 중·단편 소설: A4용지 15매 이상
  - 논문: A4용지 20매 내외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 ▶ **수상작 발표** : 2013년 2학기 중 개별 연락 및 외대학보지면
- ▶ **응모 방법**
  - 이메일 : hufspres@hanmail.net
  -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401호 외대학보사 130-791
- ▶ **문의 사항** : 02-2173-2504

- ▶ **상금**
  - 대상 70만원 및 상패
  - 최우수상 50만원 및 상패
  - 우수상 30만원 및 상패
- ▶ **유의사항**
  - 논문,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은 팀 제출 가능.
  - 출판된 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분야별 우수작끼리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분야별 시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수상 이후 표절로 판명됐을 경우 수상 및 상금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음.
  - 공모전 일정은 학보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인 1작품 출품
- ▶ **심사기준** : 본지 957호 12면 ‘외대학보 제1회 학술대전 심사총평’ 참조



학교 안 주점 금지 선언, 그 후

# 술 마셔도 되나요?

지난 해 9월 보건복지부는 이번 해 4월부터 학교 안 주류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학교는 같은 달 24일(월) 교내 음주문화 개선 선언문을 발표했다. 학교가 발표한 선언문은 △주점설치 불허 △학생의 음주 관행 개선 노력 △학교 내 각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예방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다른 학교도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뒤 주점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논의를 거친 뒤, 일부 대학은 주점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학교의 주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봤다. 또한 다른 학교는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주점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됐는지 알아봤다.

◆서울배움터 “주점은 금지했지만 약간의 음주는 허용”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지난 달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열린 축제에 주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총학생회는 학교와의 논의를 통해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축제기간동안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일본어대학 △중국어대학은 월드 빌리지에서 세계 각 나라의 전통술을 학생에게 판매했다. 또한 다른 단과대학도 학생에게 칵테일 등의 음료를 판매했다. 주류 판매에 대해 조봉현(사범·영교 09) 총학생회장은 “이번 축제에 주점을 열지 않은 것은 교내 주점에서 있었던 뒷정리 문제나 소음 문제 등에 대해 학생 내부에서 자정을 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을 말했다. 주류 판매 허용에 안경호 학생감동팀장은 “이번 축제에 주점은 열지 않도록 했지만 학생이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 술을 가져와 마시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안 팀장은 “지난 학기 ‘음주문화 개선 선언문’으로 면학분위기가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학교 학생 사이에도 주점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신일권(금경·경영 07)군은 “주점을 금지해 학교 안의 소음이 줄어드는 등 질서유지가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주로 낮에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돼 축제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해 주점 폐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은 주점의 부재가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학생회가 지난 달 22일(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77명 중 103명이 축제가 불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다. 또한

축제가 불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질문에 응답한 222명 중 가장 많은 78명이 ‘주점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경구(서양어·독일어 12)군은 “주점이 열리는 건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축제기간 때인데 이를 열지 못하게 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신입생 사이에도 축제에 주점이 없어 허전했다는 여론이 있었다. 김소연(동양어·아랍어 13)양은 “지난 해보다 학교 분위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서 허용하는 주점을 왜 우리학교에서 금지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글로벌배움터 “주점은 진행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줬다”

글로벌배움터는 지난 해 음주문화 개선 선언 이후 주점을 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해 글로벌배움터 축제에서는 국제지역대학과 통번역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이 주점을 진행했다. 김지훈(공과·산업경영 07)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사실 대학교 축제에서 주점만큼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과대학은 5개 학과 중 디지털정보공학과를 제외한 4개 학과에서 주점을 진행했다.

대신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는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주점 운영에 제한을 설정했다. 원래 중앙도로에서 명수당까지였던 주점설치가능구역을 학생회관 앞 주차장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할당된 의자와 탁자보다 더 많은 양을 추가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총학생회는 제한을 설정한 뒤 순찰을 돌며 이를 어기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긴 주점을 적발했을 때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알리고 경고를 부여했다. 경고가 2회 부여될 경우에는 해당 주점을 폐쇄하기로 결의했다. 전형근(통번역·영어 08)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이번 축제에는 사교의 범위를 △싸움 △폭행 △성폭행 △고성방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해 기준을 확실히 했다. 그리고 사교가 발생할 경우 단과대학생회장과 학과 학생회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뒤처리도 주점을 진행한 학과에서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강범규(인문·철학 10)군은 “음주문화 개선 선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지만 이번 해 주점의 규모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해 선언문에 대해 알게됐다”며 “글로벌배움터는



▲글로벌배움터 축제기간 동안 진행된 한 학과의 오후 부스

매우 넓은 편이라 주점으로 인한 소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축소한 것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의 상황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이후, 다른 학교는 주점설치여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을까. 서울시립대학교(시립대)의 경우 이번 해 주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학생의 투표로 결정했다. 학생투표결과 과반수의 학생이 주점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시립대는 주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경주 시립대 총학생회장은 “주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올바른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점 운영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해 주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축소하고 운영시간을 12시~1시까지만 규정했다. 또한 음주문화협회와 협력해 각 주점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희대학교(경희대)는 주점설치여부를 학생투표

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총학생회 내부에서 주점을 이번 해에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축제기간동안 진행되는 주점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운영도 1시~2시까지 하는 것을 권장했다. 변주영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주점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워 이번 해는 주점을 진행하되 그 운영방식에 대해 권장사항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학교처럼 주점을 폐지한 학교도 있었다. 단국대학교(단국대)는 이번 해 축제에서 주점을 금지하기로 총학생회와 학교가 합의한 바 있다. 주점을 열지 않는 대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과대학의 행사와 별개로 학생이 기획한 행사를 총학생회에서 신청받아 축제를 진행했다. 단국대 총학생회는 학생이 신청한 행사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천막과 테이블을 지원했다. 신정은 단국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와 학교가 주점을 열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학생의 반발이 있었지만 주점의 문제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해는 주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재상·신민지 기자 86haveari@hufs.ac.kr



▲매번 진행했던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는 서울배움터 월드빌리지

영화에 주석을 달다 기자 고정 칼럼 양재상 기자

영화에 주석을 달다'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영화의 다른 면을 알아보고 싶은 칼럼입니다.

## 공허한 개츠비

사람 한 명이 저택 안을 거닐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입을 딱 벌릴 정도로 크고 으리으리한 저택. 그런데 이 저택 안은 아무도 없어 썰렁하다. 그 저택의 주인이었던 백만장자가 죽은 뒤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친구는 저택을 거닐며 웬지 모를 허탈함을 느낀다.

살아생전의 개츠비는 '위대한' 그 자체였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명성. 그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은 장본인이다. 이에 개츠비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파티를 한번 열면 초대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도시 안에서도 저명인사들이 그에게 먼저 찾아와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의 모습은 죽기 전과 대비된다. 그가 죽은 뒤에는 그 누구도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았다. 파티를 함께 즐겼던 수많은 사람들도, 도시 안에서 그에게 아는 척을 했던 저명인사까지도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다. 개츠비가 죽은



▲영화 위대한 개츠비

뒤, 그의 흔적을 더듬는 사람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 다 합쳐도 당산만 못해'라고 했던 친구 한 명뿐. 개츠비의 장례식과 저택을 보자면, '위대한 개츠비'는 '공허한 개츠비'로 전락한 것 같다.

개츠비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이다. 제 아무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도, 죽음은 그가 가진 것과 이룬 것 모두를 무(無)로 되돌린다. 주변에서 애도하는 사람들도 슬퍼하는 것은 그때 뿐, 시간이 지나면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머리에서 잊히게 된다.

한번 개츠비의 죽음을 우리 주변의 죽음과 나란히 놓고 보자. 개츠비는 죽은 뒤 사람들에게 잊혀 그의 저택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어떤함을 가질지언정 평생 동안 슬퍼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그가 남긴 흔적은 차츰 사라진다. 주변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 차츰 흐려지는 것을 보면, 죽음앞의 삶은 참으로 덧없는 것 같다.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임채운 기자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 귀찮아 귀찮소만

그림을 펼친다. 꾸깃꾸깃한 종이 위 우스꽝스러운 얼굴 하나가 등장한다. 그림은 감자 같은 얼굴이 곳곳을 문방구에서 파는 핑크색 꼬마집게로 집어버렸다. 눈, 귀, 입에 이어 머리까지. 그래도 숨은 쉬어야 하겠는지 코만 예외다. 보기에는 감쪽한 집게지만 살을 집히는 순간 얼마나 아픈지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이 얼굴, 은근히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얼굴 아래에는 마치 시 같은 모양새로 작은 글씨가 휘갈겨져 있다. "귀찮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게. 쓰기도 귀찮았는지 글씨가 또박하지 않아 마지막 단어는 정확히 보이지도 않는다. 그림의 종이 구겨진 것은 주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종이를 집어 그렸고 그림이 완성된 이후에도 작품을 굳이 살살 다루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그림의 제목은 '귀찮아.' 그림은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하지만 참으로 기똥차게 제목을 표현해내고 있다. 이런, 갑자기 칼럼 쓰기가 귀찮아진다.

이럴 때가 있을까. 세상이 나에게 거는 단 한 마디의 말에 대답하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귀찮은 순간. 집게 대신 다른 것으로 소통의 통로를 틀어막은 사



▲주재환, 귀찮아

람들이 쉽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이런 순간은 종종 찾아오는 것 같다. 가끔 우리는 옆에 타인이 있는데도 이어폰으로 귀를 틀어막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다. 이어폰에서 음악을 듣고 싶거나 전자기계에서 당장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라기보다 그저 응답을 하는 것이 귀찮아서 말이다.

슬픈 사실은 이 그림처럼 할 수 있는 순간이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귀찮아 죽겠다고 해서 진짜로 얼굴 이곳저곳을 집게로 집어버릴 수는 없다.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했을 때의 뒷감당이 어렵기에, 이 얼굴이 왜 은근히 웃고 있는 듯 보이지는 않 것 같다. "난 멍하게 귀찮음"이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에 성공한 이 얼굴이 마치 평화를 쟁취해낸 승리자처럼 느껴지나 보다.

그림을 단다. 집게로 집으면 아프다. 귀찮음을 진짜로 표현할 때의 뒷감당도 마찬가지로 매우 아플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귀찮아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고 다짐한다. 하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꼬마 집게 하나가 만져진다. 휴.





# 우리땅 독도를 지키려는 학술회의, 우리 학교에서 열리다

최근 일본 우익세력이 기세를 부리면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역사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지정해 역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춰 이번 달 29일(수) 우리학교 역사문화 연구소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울릉도·독도 방면에 있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온 6명의 학자들이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와 열띤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학술회의를 기획한 이영학 우리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지금 독도와 관련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학문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해보고자 한다"며 "독도·울릉도를 비롯한 역사연구에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 ◆한·일 간 핫이슈, 독도문제

독도를 둘러싼 분쟁의 연원은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은 1900년에 왕의 명령으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죽도와 석도를 관할한다'고 공포했다. 반면 일본은 1905년 2월에 시네마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포했다. 한국에서는 석도를 '독도'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그 증거가 풍부하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단행하면서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영토확장 정책을 추구해왔다. 북쪽으로는 아이누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북해도의 개척에 나서고, 남쪽으로는 1879년 류큐(琉球)왕국을 영토로 편입해 오키나와현을 설치했다. 그 후 1894년 청일전쟁의 결과 대만을 식민지로 삼고, 러일전쟁을 치루면서 지형학적 특성이 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 날 학술회의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독도·울릉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연구를 한걸음 더 진척시키기 위해 3명의 전문 학자들이 시기별, 분야별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허영란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19세기말~20세기 초 일본 정부기록물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 대해 △김종준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개항기 울릉도의 상업 문제에 대해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 교과서 서술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각각의 발표에 이어 △김수희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 △윤소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의 토론이 있었다. 이후 이번 학술회의를 개최한 이영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 ◆다케시마(竹島) - 마쯔시마(松島) - 랑코도? 혼돈의 독도·울릉도 인식

이 날 학술회의의 첫 시작으로 허영란 교수가 '19세기말~20세기 초 일본의 정부기록물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 대해 발표했다. 허 교수는 현재까지 본격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던 시네마현 및 오키섬의 정부기록물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나타나는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추적했다. 더불어 그 인식이 시기별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일본의 시기별 인식에 따라 명칭도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각각 다케시마(竹島)와 마쯔시마(松島)로 부르다가 현재는 이를 뒤바꿔 명칭하고 있다. 허 교수는 "이 혼란들의 실체를 조사함으로써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어떤 인식이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일본 내부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며 "연구를 통해 현재 다케시마(竹島)라는 일본의 독도 명칭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허 교수의 연구에 따라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에도시대 이래 고문헌과 고기록 등에서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해왔다. 1877년 시네마현의 행정문서에서도 다케시마(竹島)를 울릉도, 마쯔시마(松島)를 독도로 인지하며 두 섬이 조선 영토에 속한다고 파악했다. 그 후 1880년 군함 아마기의 울릉도에 대한 실지 조사 결과에서 울릉도를 마쯔시마(松島), 독도는 리앙쿠르도 열암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을 밝혔다. 허 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명칭의 혼란은 1880년대 초 외무성에서 마쯔시마(松島)는 조선령 울릉도이고 구래로는 다케시마(竹島)로 불렀다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후 마쯔시마(松島)를 울릉도의 명칭으로 정착시켰고 마쯔시마(松島)=울릉도=다케시마(竹島)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1900년대에는 일본의 두 가지 명칭 대신 '울릉도'라는 한국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국령인 울릉도에 대해 일본 명칭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독도는 서양 명칭인 리앙쿠르 락스로 표기됐고 이후 랑코도 등의 명칭으로 변모하며 정착했다. 하지만 1906년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며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라는 일본 명칭을 갖게 됐다. 허 교수는 "이때 편입 조치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내무성에서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외무성과 해군성에서는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해 문헌 조사

나 실태 조사없이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김수희 교수는 "그동안 지방 공문서와 중앙기록을 분리해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지닌 연구물"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영토정책을 지방 현지의 역사적 경험보다는 메이지시기 일본정부가 설정한 국익을 중심으로 재편했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본 상인에게 사기 당한 조선 상인 김두원, 울릉도 상업 문제를 얘기하다

이어서 김종준 교수는 '염상 김두원 사건을 통해 본 개항기 울릉도의 상업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독도 관련 자료에 비해 울릉도 관련 자료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울릉도 역사연구를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관지을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소개한 염상 김두원 사건은 1899년 원산의 소금상인 김두원이 일본 상인 기무라 켄이치로에게 속아 울릉도에서 소금을 모두 도난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약 30년간의 처리과정을 통해 19세기 말 일본 상인의 울릉도 진출과 작폐 양상, 한일 양국의 외교적 교섭 양상 등을 다뤘다. 이 사건에서 김두원이 일본상인의 사기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백했으나 가해자가 사망한 관계로 김두원은 탈취당한 소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언론에 의해 이것이 일본의 또 다른 침탈 중 하나로 상징화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는 한·일 간 외교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염상 김두원의 상로를 통해 "울릉도의 목재는 경상도 해안가의 소금 산지로 건너가고 여기서 구입된 소금이 다시 울릉도로 들어가 어물보관을 위해 매매되는 방식이었다"며 개항기 울릉도 상업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울릉도 내 조선인들은 농산물 생산을 통한 자급자족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때 울릉도 내 상업 형태는 일본인들을 매개로 해서 복합적으로 형성됐었다고 확인했다. 울릉도 내 산물이 대규모로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양국의 무역 과정에서 일본 상인들이 사기그릇 등을 곡물과 교환하려는 등 작폐 행위를 보였다. 작폐 등으로 인해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관제를 제정기에 이르렀다. 또한 울릉도에 머무는 일본인 퇴거 문제로 한·일 양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등 일제의 독도 영유권 침탈배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 측의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울릉도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인식 및 당시 대한제국의 태도 등에 대한 연구를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자 윤소영 연구위원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그동안 본격적으로 조명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역작"이라고 평가했다.

## ◆한·일 역사교과서 속 독도는?

독도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뜨거운 현안인 독도 관련 한일교과서 집필 현황에 대해서는 김영수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과거에 일본의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만 독도 관련 내용을 수록해왔지만 2008년부터 역사 교과서에서도 독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현재는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역사교육의 역할은 자국민들의 정체성을 높이고 보편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나 최근 일본의 역사교육은 지나친 내셔널리즘으로 기울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숨어있는 일본의 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비교분석했다. 독도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 기술의 실질적 기준인 '학습지도요령해설'도 분석했다.

"현재 일본의 역사·지리 고등학교 교과서 관련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해설에는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 없다. 하지만 일본 고등학교 지리·역사의 학습지도요령해설 중 영토 관련 내용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기본'으로 한다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을 보면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지리 등의 독도 관련 기술에 영향을 받아 독도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했고, 독도를 '해결되지 않은 현안 문제', '한국이 불법 점거' 등으로 기술해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고 전면 비판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주요 논리는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점 △1905년 시네마현이 독도를 편입해 영유했다는 점 △'이승만관인'은 공해상의 위법이라는 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다는 점 등이다. 이에 근거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결합시켜 독도를 한일 양국의 분쟁지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서는 대체로 고유영토론에 기초한 독도의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해 일본에 반박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리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일본이 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 유미림 소장은 "선행 연구가 대부분 2010년 이전 분석에 치우쳐 있는데 비해 지난해 개정된 한일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상 독도 관련 내용 및 2009년 이후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해설'을 함께 분석해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 ◆해결 못한 명칭문제와 앞으로 연구방향은?

열띤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문제 및 근대 한일 양국의 독도·울릉도 논쟁에서 쟁점이 된 부분들을 짚어보고 토론을 진행했다. 허영란 교수는 "문제의식은 명칭자체보다는 명칭을 통해 여러 주체들이 어떻게 울릉도·독도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그대로 직역할 것인지 사건에 대한 연속성을 따져서 명칭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소영 연구위원은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명칭문제는 곧 영토주권의 문제이므로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학 교수는 "역사적으로 어떤 용어가 적절한지는 그 용어가 중립적일 때 의미가 있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은 울릉도·독도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일양국 관계뿐 아니라 러·중, 러·일, 동아시아의 향후 분쟁지역들의 추이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 △이익관계를 떠나 역사적인 진실을 목표로 하는 독도문제 연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지방·중앙정부의 문서와 자료 등 국내 측 자료에 대한 연구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연구 및 홍보 △독도 연구자간 대국적인 연구 교류 및 협조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영학 교수는 이 날 학술회의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한국 근대사 연구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며 행사를 마쳤다.

이은결 기자 88eg@hufs.ac.kr

## 우리학교 역사문화연구소는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 위치한 역사문화연구소는 1984년 세계 각 지역의 △제도 △사상 △문화를 포함한 역사 전반에 걸친 비교연구를 위해 설립됐다. 국제 역사와 문화의 이해와 연구,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학내 각 지역연구소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 각 지역 비교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등 우리학교의 특수성과 이미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연구총서 및 연구논문집 발간 △역사 관계 자료의 수집 및 발간 등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이은결 기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유난히 취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러던 중 서울배움터 비상총회가 있던 날은 마침 총학생회 담당 기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정도 없어 집에서 한숨 쉰다.

그래도 이왕 가는 거 한명의 성원이라도 보태 총회가 성사되는데 기여하는 마음가짐으로 걸음을 돌렸다. 총회는 성원을 확인한다며 한 시간 늦게 시작했다. 단위 학생회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끌어오느라 그런 것 같았다. 성원확인 결과 877명으로 성사가 됐다. 그런데 총학생회장이 성사 선언을 하자마자 200여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우르르 빠져나갔다.

서울배움터에서 마지막으로 총회가 성사된 것이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하다. 지난 2011년 10월에 있었던 비상총회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엔 삭발과 단식을 강행하며 학생 참여를 촉구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총회뿐 아니라 총학생회장 선거도 이번 해로 2년째 무산과 재선거를 반복해왔다. 왜 점차 학생사회에는 주도할 학생도, 참여할 학생도 사라지고 있는 걸까?

총회가 끝난 후 총학생회장은 눈물을 보이며 '자리를 떠난 학생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며 끝까지 남아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총회가 무산된 만큼 학교와 협의할 때 학생 전체의 의견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안타까움을 얘기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현대권 재선임 투표도 결국 취소됐다. 투표를 위해 설치한 기표소를 허탈히 치우고 있는 총학생회 간부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이제 학생들의 안전은 늘 그랬듯 전학대회로 넘어가게 됐다. 총회 내내 발의하는 학생도 '~회장' 들 뿐이었던 지금, 학생사회도 점차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사실 이번 총학생회는 총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하고 실천단을 발족해 홍보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런데 한 선배 기자에게 총회가 성사되던 때의 총학생회는 총회 한참 전부터 온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참여를 호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노력한만큼 결실을 맺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노천극장에 불인 플랜카드, 학교 불시습격 같은 가시적인 것은 떠나서 말이다. 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총학생회에서 뛰어야 학생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 본인도 취재가 아니었으면 딱히 가야할 의무를 느끼지 못했으니, 학생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총학생회의 노력도, 학생들의 관심도, 그 무엇도 없다면 다음에는 정말로 학생사회에 아무도 없을까?

지난호를 말한다 |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김미소(서양어·프랑스어 10)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학보

봄의 태동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여름이 찾아왔다.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에 짧은 봄을 아쉬워 할 수도 있지만, 울창해지는 나무와 생동하는 자연을 보며 여름의 정취를 미리 만나볼 수도 있겠다. 한발 일찍 찾아온 여름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호 외대학보는 예정보다 일주일 가량 늦게 발행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발행이 지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난 호가 담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알차고 유익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우리학교가 QS 대학평가 중 현대어 문학 분야에서 국내 3위에 오른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소식이다. 이와 더불어 국립외교원장으로 선임되는 윤덕민 동문의 동정 역시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외교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학교의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 생각한다. 스승의 날을 기념한 특집 기사는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등불이 돼주신 스승님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특히 지난 호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기사는 대학보도 지면의 선거제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학생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학생들의 지지를 얻은 대표자는 자치 기구를 설치해 학생들을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선거제도는 학생들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거의 바탕이 되는 선거제에 관한 꼭 필요한 규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 호에서 외대학보는

서울배움터 내 각 단과대학에서 선거제도가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이는 선거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의 필요성을 환기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제도의 목적과 중요도를 인식하도록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보도로 인해 선거제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행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박철 총장 학생들과의 대화'에 관한 기사는 내용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다. 이번 행사 이후 학교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일반 학생들은 학보의 기사를 통해서만 행사의 진행과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총장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는 흔하지 않으므로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궁금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총장과 각 분야의 처장들이 함께한 질의응답에 대한 사항들은 비교적 짧게 언급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학보는 학생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학내 소식을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동문들을 소개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발굴하여 재미있게 소개하는 일이다. 따라서 외대학보가 신선한 기획을 통해 흡입력 있는 기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주기를 부탁하고, 이것이 더 많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기자의 필수 스펙은 불의를 못참는 성격?

동문의 소리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김당(노어 79)

나는 왜 기자가 되었나? 독자들의 질문에 필자는 '불운한 대학시절과 외대학보'라는 키워드로 답한 적이 있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한 1979년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언제 끝날지 모를 암울한 시기였고, 외대는 후기대였다. 대부분의 남학생처럼 필자 또한 군대에 다녀와 복학하기 전까지는 '후기대 콤플렉스'를 떨치지 못했다.

시대와 불화했지만 제적과 옥살이를 각오하고 독재정권과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방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운동권도 아닌 '관찰자'로서 택한 '도피처' 또는 '피난처'가 <외대학보>였다. 돌이켜보면 '운동권 아닌 운동권'으로서 그때 '뺨질'과 '짱돌' 대신 잡은

일시 정지

'펜'이 어느덧 4만세기를 넘겨 해온 기자생활의 출발선이었다.

외대 동문들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진출도와 평판도가 높은 곳이 국가정보원과 언론계가 아닌가 싶다. 목은 통계이지만, 국가정보원의 '5급 이상 직원의 출신지역·고교·대학별 현황' (2005년)에 따르면, 200명 이상인 대학은 고려대(255명)와 외대(211명)뿐이었다. 그 다음은 서울대(189명)였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스갯소리로 '관선 기자'라고 칭한다. 일간지와 주간지 기자들이 하루 또는 주간 단위로 기사를 쓰듯, '일보' (1일정보보고)와 '주보' (주간정보보고)를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원 요원의 덕목이 투철한 국가관과 무명의 헌신이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자의 덕목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아닐까 싶다.

전보다 언론계의 사회적 진출도는 떨어졌지만 요즘 언론계에 들어오는 재기발랄한 후배들을 보면 '후기대 콤플렉스'나 '운동권 콤플렉스'는 찾아볼 수 없어 건강해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른바 '스펙 쌓기'에 몰두하느라

다양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민족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탈락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담론이 '2대 8의 사회'에서 '1%가 99%를 가진 사회'로 바뀐 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해왔다. 최근 이른바 '라면 상무'와 '빵사장' 그리고 '조폭우유' 파문은 '갑을(甲乙) 관계'의 파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모순이 비등점에 달했음을 시사해준다.

"20대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도 캐피탈리스트가 아닌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또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성격'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사회적 부조리와 경제적 불평등을 포함한 모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은 '기자의 필수스펙'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앞서의 우스갯소리에 빚대어 필자가 후배들과 '직업(인)으로서의 언론(기자)'을 말할 때 흔히 강조하는 것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그리고 균형적 시각이다. 물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으로 충만한 후배들이라면 대환영이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지난 달 29일(수) 스토리스토어와 인액스에서 시행한 아웃장터프로젝트의 경매 장면 선글라스를 팔러 나온 남학생이 진품 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매를 통해 나온 수익은 모두 기부된다.

임재훈 기자 86healing@hufs.ac.kr

지난호를 말한다 |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김경환(국제지역·러시아 13)

함께 만드는 외대학보

지난 960호는 먼저 1면에서 개교 59주년을 맞이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소개하고, 다음 해가 60주년이라는 점을 소개한 것이 돋보였다. 또한 QS평가에서 국내 대학 중 어문학분야 3위를 달성한 사실을 보도해 우리학교가 이룬 높은 성과를 구성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 호의 특징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갑을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건 실렸다는 점이다. 1면 '빈의자'에서는 '갑을문화'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잠깐의 분노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만 소란스러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 또한 7면에 '일하는 대학생-대학생은 근무중'이라는 특집기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사례가 담겨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학교 법률상담소의 조언을 자세하게 다루 노동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런 심층기획은 꼭 필요하다. 다만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구제 방안을 덧붙였더라면 더 좋을 것이다.

예정 발행보다 늦어진 960호는 너무 지난 소식이 많았다. 먼저 3면 글로벌배움터 축제에 대한 기사의 경우, 학보 발행일에는 이미 축제가 끝난 상태였다. 8면 '수백년 기억 담은 성북'도 생생한 내용과 사진은 훌륭했지만, 기사에 소개된 간송미술관 전시는 학보를 읽을 시점에 폐장을 앞두고 있

었다. 이외에도 격주 발행인 학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난 기사가 종종 보이는데 앞으로는 발행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좀 더 신속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

한편, 3면 '박철 총장-학생과의 대화'는 박 총장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새롭게 건설 중인 △승도배움터와 △서울배움터 도서관 개신 △광역화 △이중전공과 같은 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는 학생의 학업 및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사는 너무 짧고 간단했다. 30명밖에 참석하지 못한 행사에 대해 많은 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총장의 답변을 좀 더 깊고 자세하게 기사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학교 다양한 현안과 정책에 대해 보도한다면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보에 학교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 아쉬움을 느낀다. 현재 10~11면은 '열린공간'이라는 제목이지만 정작 독자에게 열려있는 공간은 11면 '비둘기 필관' 뿐이다. 독자에게는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칼럼이 필요하다.

열린공간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려면 외대인 누구나 지면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줬으면 한다. 11면 오른쪽 아래에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쓰여 있다. 능동적인 독자 참여를 유도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 비둘기 칠판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 글로벌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복학 후 첫후배

2012년 6월 전역을 명받고 다시 돌아온 학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친 후 20살에 후배를 한 명도 모르는 상태로 입대했고 군 전역 후 복학했습니다. 학교생활이 한주 두주가 지나면서 한 후배가 인사도 먼저 하고 밥 먹을때 외로웠던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친해지고나니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이 많이 겹쳐서 항상 친형동생처럼 붙어다녔고 때론 수업 시간에 칠없이 장난쳤고 때론 고민상담도 해주는 든든한 친형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일병이 됩니다. 중국어통번역 12학번 자칭 외대 퓨어(pure)남 경원아! 군생활이 많이 지겹고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항상 성실하고 유쾌한 네 본모습 잃지말고 건강 잘 챙기며 군생활 잘마쳤으면 좋겠다! 원고료 나온다는데 원고료에서 형 사비보태서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충!성!



▲받는이 서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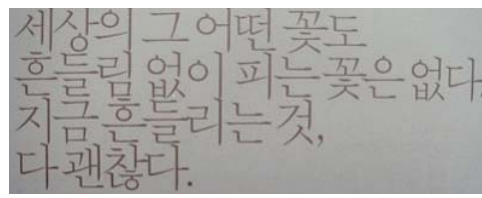
From. 정상필(통번역·중국어 10)

### 서울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4년 간 同居同樂한 내 사람들에게♥

서울살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집 밥도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여수도 너무나 그리웠어. 하지만 국제통상학과에 입학한 후 금방 타향살이를 하는 동지들을 만났어. 내 곁에는 항상 든든한 우리 김수연, 김지현, 송현비, 최예리 씨가 기쁠때나 슬플 때나 분노 폭발했을 때나 함께 해줘서 외로움 틈이 없었지. 남들은 피상적인 대학 인간관계에 대해 신물나 있을 때 너희를 떠올리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우리가 함께했던 성년의 날, 월드컵, 노래방, 그 밖에 수많은 추억이 축축 늘어질 때마다 내 기운을 북돋아 줘.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구나. 이제 졸업할 앞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잘 견뎌내고 씩씩하게 잘 해내자. 내가 항상 응원해줄게. 사랑해. 프라페 파이팅

From. 봉수영



▲봉수영(상경·국통 09)이 받는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 ◆외대공감 - 스티커를 붙여라!

이번 961호 외대공감은 양 배움터 대동제를 맞아 <축제라서 이견 싫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 '축제'라 하면 즐거움, 오락이 단번에 떠오르지만 반대로 축제라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축제를 맘껏 즐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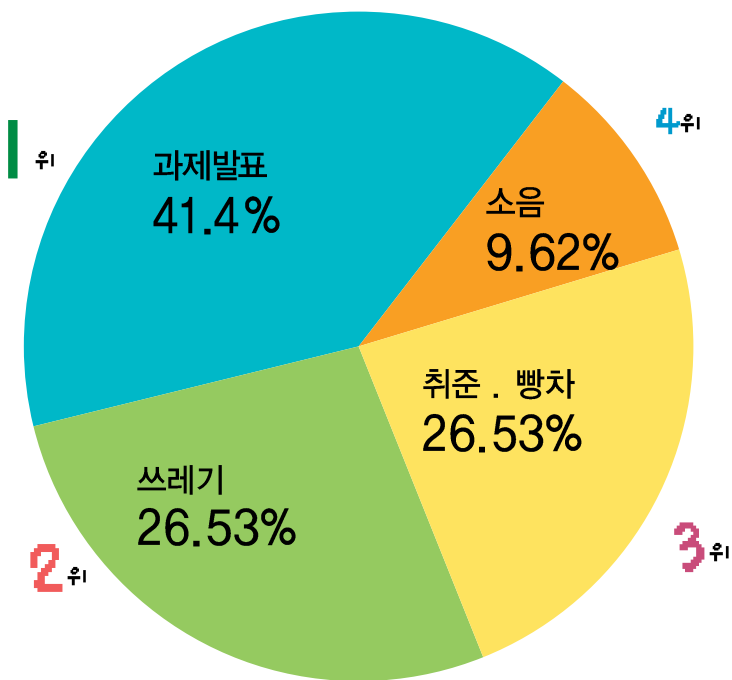
#### 주제 <축제라서 이견 싫어>

##### 서울배움터

- 1위 '축제를 가로막는 과제 폭탄'
- 2위 '취준생이 무슨...'
- 3위 '즐거기만 하면 끝? 난무하는 쓰레기'
- 4위 '수업에 방해돼, 밤새도록 이어지는 소음'

##### 글로벌배움터

- 1위 '나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발표, 과제'
- 2위 '머무른 자리도 아름답게 쓰레기'
- 3위 '이해할 수 있지만, 도서관까지만 유행하는 빵차'
- 4위 '나는 아직 수업중. 나가고 싶게 만드는 소음'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마음이 그러하듯 양 배움터 동일하게 과제발표가 축제 기간 가장 싫은 점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축제 중 생기는 소음에 대해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그 소음은 '소음'이 아닌 '흥'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 호인 다음 962호에서는 학생들의 방학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배움터에서는 국제학사 1층과 인문과학관 학생식당에서, 글로벌배움터에서는 승차장과 본관 1층 현관 두 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설

## 선배들에게 자랑스러운 후배가 될 수 있기를

외교관은 국가의 얼굴이다. 고르고 골라 선발된 인재만이 외교관이 되며,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한다. 유능한 외교관은 나라의 자랑스러운 후배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 59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교관을 배출하였다. 외대의 얼굴, 외대를 대표하는 인재들이 졸업 후 나라의 얼굴, 나라를 대표하는 인재로 활약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재학생들에게는 외교관 선배가 많다는 이야기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외교관 선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막상 동문 외교관이 누가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재학생은 거의 없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재외공관장 회의가 지난 달 20일부터 24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한국대사관의 수장인 대사 및 대사급 인사 122명이 참석했다. 이 중 외대 동문은 40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 및 대사급 외교관 삼분의 일이 외대 동문이다.

현재 외교부에는 200명 이상의 외대 동문이 활약하면서 외대 전성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외교부 내 외대 전성시대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2012년 9월 28일 '법률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간 외대 출신 외무고시 최종합격자는 모두 7명으로 6년 간 총 합격자 208명 중 3.4%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대는 93명(45.81%), 연세대 43명(21.18%), 고려대 29명(14.29%), 그리고 서강대는 9명(4.43%)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했다. 외교관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대사급으로 발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20-30년 뒤 외대 출신 공관장이 몇 명이나 나올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외무고시가 아닌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학교 정외과를 졸업한 윤덕민 동문을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내년도 입시에서 고급 외교관 육성을 위한 'LD(Language & Diplomacy)학부'를 신설하여 국립외교원 입학에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외무고시에서 보였던 약세를 만회할 계획이다. 외대를 졸업한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현재 외대에서 공부하는 재학생의 몫이다. 외대 재학생들은 선배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후배가 되어야 한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외대 동문이 외교관, 대사로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드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자.

## 대학생,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아나

지난 달,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채널A와 TV조선의 왜곡 방송이 연일 논란이 됐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 사람이 나와 의견을 밝힌 것이었다. 이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잘못된 역사보도라며 비판했다. 또 일본 아베총리 정부 인사들이 잇달아 과거사 왜곡 발언을 하고 있다.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발언 및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의 모습을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우리나라는 이 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달려있는 제국주의라고 비판했다. 왜곡된 역사적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며 각종 포털사이트 댓글을 달며 반응을 드러냈다. 또 셋만 모여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관심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독도, 신사참배 등에 대해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집계 됐다. 이번 호에선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역사와 관련된 소식을 실었다. 먼저 우리학교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알아보는 기획기사에서는 전반적인 역사질문에 대해 정답률이 61%로 나왔지만, 근현대사 질문에 대해서는 오답률이 높아 충격을 줬다. 또 구체적인 답을 듣기 위해 물었던 주관식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던 사람은 몇 없었다. 한편 실질적으로 관심을 드러내는 곳에서도 많은 참여를 볼 수 없었다. 학술면에 실린 독도 관련 학술대회 기사는 우리학교에서 지난 달 29일(수) 개최한 독도관련 학술회의를 바탕으로 실었다. 하지만 이날 대회에는 사학 전공자들 이외의 학생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반짝 관심에는 열을 쏟지만 정작 깊이있게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한다. 올바른 역사관은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번 호 인물면에 동북아시아재단 사무총장이 말했다. 지난 역사를 알아야 함은 당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됐다는 여론에 휩쓸려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문나윤 부장 홍규원

차장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운

수습 구연지 김민지 김채훈 서보윤 이영호

임수진 정가림 주희진 최소영 허규범

교이현주 정진경

제작 경보미디어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 송무백 열,

##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

동북아의 화해는 서로간의 진정한 이해와 관심으로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 등 우리나라는 주변 동북아 국가들과 역사적 분쟁을 벌여왔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역사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본과 중국을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우리학교 인도어과를 졸업하고 1976년에 외무고시에 합격해 35년 넘게 외교관으로 근무한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보이는 그림들. 베이징의 북해공원과 중국 어느 도시의 뱃길이 그려져 있다. 인민해방군의 장교인 그의 중국친구가 그려준 것이다. 잠시 그림에 빠져있던 기자에게 석동연 사무총장은 반갑게 악수를 건넸다.

**Q. 현재 선배님께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2004년 동북공정이 한·중 간 큰 이슈가 된 이후, 중국의 우리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2006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 △중국의 역사왜곡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역사의 화해를 위한 기관으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역사를 인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두고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역사 인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동아시아 역사를 같이 쓰는 일에 관여하거나 후원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중일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서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서적이 4년이 넘는 준비 끝에 발간됐어요. 한중일 학자가 함께 집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접해왔던 국사 기술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는 '임진왜란'을 '임진전쟁'으로 기술합니다. 임진전쟁은 명나라와 조선이 참전한 일본과의 국제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죠. '임진왜란'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전쟁을 일으킨 가해국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역사 교과서를 일본 학생들이 쓰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표현을 쓴 것이죠.

**Q. 주홍콩총영사로 있었을 때 외국인 최초로 홍콩 공익광고방송에 출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 2008년 경제위기 때 홍콩 시민들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공익광고방송이었는데 저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을 보냈죠.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홍콩언론과 자주 접촉하여 인터뷰도 하고 기고문을 자주 실기도 했었지요. 2010년 3월 5일이 기억에 남네요. 이날은 홍콩총영사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날이었는데 홍콩의 대공보라는 신문이 저에 대한 특집을 전면에 실어줬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특이한 일이지요.

또, 제가 홍콩에 있을 때는 중국대륙에서 나오는 인민일보 국내판에 제 기고문이 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해 말 대공보에 한중수교 20년을 기념해 제가 쓴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고 금년 1월에도 전면으로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Q. 홍콩인과 중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홍콩인과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무엇인가요?**

중국사람과 홍콩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중국사람들을 사랑해야 중국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이치죠. 제가 중국과 인연을 맺은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님으로부터 논어를 배우기도 했고, 삼국지를 읽으며 중국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73년부터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95년에 처음으로 주중국대사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18년 동안 단 하루도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 읽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었어요. 중국에 대해 공부하고 중국인들과 대화하면서 '중국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국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면 할수록 대화하기가 쉬워져요. 하지만 수박겉핥기식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것과 진정으로 중국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진정으로 중국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부단히 중국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중국의 변화에 대해 이해해야겠지요?

대공보에 실린 제 글의 제목에 '경상이청로우(更上一層樓)'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는 당나라의 왕지환(王之涣)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서

나온 것으로 '멀리 보기 위해서는 한 계단 더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경상이청로우'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은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시 구절이기 때문에 중국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정말 좋아했죠.

**Q.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성어로 표현해주세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통 '송무치한(脞亡齒寒)'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중관계를 '송무백열(松茂栢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송무치한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반면 송무백열은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이 발전하는 것을 중국에서 좋게 보는 관계라는 것을 '송무백열'이라는 글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Q. 중국에 대해 항상 좋은 얘기만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중국과 송무백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한 말은 해야하죠. 중국이 요즘 한국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이 미국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끌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핵 항공모함이 황해에 들어오면 중국 주요도시와 중국이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군사기지가 다 작전반경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중국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 미국을 끌어들이며 중국을 견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조지 워싱턴호 황해에 끌어들이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황해에 들어왔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게 되면 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 싫다면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라"고 중국친구들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말은 안하고 웃기만 하더군요. 중국친구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거나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또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힘 자랑에 이웃 국가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웃을 만들고 싶으면 덕을 베풀라는 말이죠. 중국에게 끌려온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중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죠.

**Q. 요즘 중국은 정말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나라 해경 대원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 중국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한중관계에 빛과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어느 한 면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시장에서 1년에 오르는 초코파이가 1조 이상, 현대기아자동차가 120만 대가 팔립니다. 또한 중화권에서 삼성의 매출액은 1년 동안 600억 달러나 되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임과 동시에 세계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약 30년 동안 외국에 나간 중국사람의 수는 20만 명이었는데 비해 지난 해에는 무려 8100만 명의 중국인이 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중국이 1년에 이제 1억 명이 해외로 나갈 날이 머지않았죠. 강원도에 양양공항이라는 국제공항이 있는데 한해 9개월 동안 승객이 한명도 없는 유명공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항을 중국사람들이 살렸어요. 이번 해는 8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양양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발전과 변화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식품안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서 분유를 사오고, 비짜지만 수입한 한국과자도 많이 사먹어요. 왜냐면 자신들도 중국 식품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예요. 중국의 후진적



연세대학교  
사진: 김민정

### 우리학교 석동연(인도어 72)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이고 낙후되고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서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Q.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외교관은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이니만큼 실력과 인품 등 모든 면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요즘은 대사들이나 총영사들이 자동차에 테크를 꽂고 다니는 경우가 드뭅니다. 테러의 목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전에 대사나 총영사는 자동차 앞에 대한민국 국기를 꽂고 다녔어요. 외국인들이 저를 통해 대한민국을 이해하게 되니 행동에도 조심하게 되고, 옷차림도 신경을 쓰게 되죠.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서 외교관만을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역시 외교관은 신분이 주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교양 있는 행동과 주재국에 대해 우의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해외근무뿐만 아니라 국내근무 할 때도 늘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의무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요즘은 국내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장기체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외교를 하는 것 못지않게 국내에서 외국인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Q. 우리학교 특성 상 앞으로 국외에서 활동할 후배들이 많을 텐데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잠실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사이에 삼전도비(三田渡碑)가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청 태종의 막사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며 고개를 조아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 청태종이 비로 만든 것이죠. 명청교체에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무시하다가 호되게 당한 것이 병자호란입니다. 그 때 우리가 청나라의 힘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읽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청나라의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국제정세를 잘 봐야합니다.

또 한가지 말하자면 저는 지난 얘기지만 역사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건설해야 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요즘 사이, 류현진 등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옛날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해야겠습니다.